

Ayo Adewuya 박사 , 고린도후서, 2차 세션, 고린도후서 1장, 인사, 기도, 감사, 여행 계획

© 2024 Ayo Adewuya 및 Ted Hildebrandt

이것은 고린도후서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아요 아데

우야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2, 고린도후서 1, 인사, 기도, 감사, 여행 계획입니다. 우리는 고린도후서를 살펴보기 시작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본문을 다룰 것입니다. 보다시피, 삶에서 우리는 종종 오해와 불신의 관계에 얽히게 되는데, 여기서 쉽게 벗어날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는 동기를 비난하고, 의견이 맞지 않는 사람들에게 의심의 혜택을 주는 것을 거부합니다.

분위기는 불신과 의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가족, 직장 또는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고린도후서를 쓸 때 처한 상황입니다.

바울은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어떻게 상황을 바로잡을까요? 그는 단 하나의 선택권만 가지고 있었고, 그 선택권은 고린도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해 자신을 설명하고 그들에게 이해와 사랑을 호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후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1장을 읽어보겠습니다. 1장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과 우리 형제 디모데가 고린도에 있는 교회와 아카이아 회당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제 두 구절을 읽는 동안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누가 편지를 썼는지 아는 것은 항상 좋은 일입니다. 보시다시피, 편지의 서두는 매우 짧고 요점을 잘 잡았습니다.

바울과 그의 서신의 관례에 따라, 서론은 항상 바울이 나중에 서신에서 다룰 문제에 대한 힌트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바울의 서신을 골라 에베소서나 갈라디아서, 고린도전서나 로마서를 읽고 싶을 때마다 서론을 읽고 생각해 볼 시간을 가지십시오. 서론을 떠나 서신의 본문으로 가면 바울이 이미 암시한 힌트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나중에 자세히 다룰 것입니다. 바울과 고린도인 사이의 문제 중 하나는 고린도의 일부 사람들이 그의 사도직에 의문을 제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사도의 결정이나 욕망에 의해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시작합니다.

이제 들어보세요. 매우 중요한데, 그는 자신을 바울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고 하며, 디모데를 우리 형제라고 부르기 때문입니다. 이제 설명하기 전에 몇 가지 요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아프리카에는 당신이 보내진 사람을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당신을 보낸 사람만 두려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충성심은 당신을 보낸 사람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당신이 보내진 사람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시죠? 서양에서 말하듯이, 당신을 보낸 사람이 당신의 등을 지켜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그는 당신 뒤에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아주 어린 소년이었을 때, 아시다시피, 어린 소년들은 부모님이 가고 싶지 않은 곳으로 보내셨죠. 고개를 저으며, 고개를 저거나 머리를 뒤로 젖히곤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할 겁니다.

내가 말할게, 좋아, 내가 널 보낼게. 여기로 돌아와. 여기서 만나.

아니면 가는 게 두려울 거야. 그러면 아빠가, 걱정하지 마, 내가 보낼게. 내가 책임질게.

그리고 누가 당신을 보냈는지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항상 매우 좋습니다.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당신은 광야에서의 모세의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그는 이스라엘 자손들과 문제가 있었고, 때때로 그들은 그를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모세는 무엇을 합니까? 모세는 하나님께 돌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누워서 말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런 일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신은 말씀하십니다, 좋아, 내가 당신을 불렀어. 사역은 어린애 장난이 아니기 때문에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은 항상 좋은 일입니다. 사역은 어렵습니다.

사역은 힘듭니다. 사역은 위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 당신이 저를 보내셨습니까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실 것입니다. 네, 내가 당신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자신을 보냈다면, 그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는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즉 하나님께서 나의 사도직을 시작하신 수단을 통해.

다시 말해서, 신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는 그 직책에 선출되지 않았습니다. 선택에 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나는 당신이 승진을 통해 사도가 되는 교파를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목사가 되고 , 결국 어느 시점에서 당신은 사도가 됩니다. 당신의 급여가 늘어나고 그런 것들 말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관리자가 됩니다. 풀은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라고 말합니다 . 저는 그 직책에 투표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선거로 사도가 된 것이 아니었다. 나는 승진으로 사도가 된 것이 아니었다. 나는 교파의 통치나 정치를 통해 사도가 된 것이 아니었다.

나는 하나님의 뜻에 의한 사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고린도 교회에 침입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는 고린도 교회의 창시자였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즉, 그것은 신의 임명에 의한 것이지 인간의 인정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인들이 그를 낮게 여겼더라도 그는 하나님 앞에서 사도로서의 지위를 낮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것의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만약 고린도인들이 바울의 사도적 권위에 의문을 제기했다면, 그들은 기본적으로 그들 자신의 기독교적 존재의 기초를 파헤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가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했고, 그들이 지금 바울의 사도적 권위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면, 그들은 그들 자신의 기독교적 삶이 세워진 바로 그 기초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현명한 일이 아닙니다. 바울이 거짓이었다면, 그들의 믿음이 거짓이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틀렸다면, 그들의 믿음이 틀렸다는 뜻인데, 그가 유일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사람의 뜻으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 책 전체는 사도로서의 바울의 성실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진술은 매우 중요한 진술입니다. 왜냐하면 이 책이 그의 성실성에 대해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직위에 선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위를 놓고 경쟁하여 사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치적 책략으로 사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것을 직업으로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아닙니다. 그는 그를 그곳에 두신 하나님과 잇을 수 없는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은 사역에 부름받은 모든 목사에게 필요합니다. 이제, 당신은 더 이상 다마스쿠스 길로 갈 필요가 없지만,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는 그것을 직업으로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를 그 자리에 두는 잇을 수 없는 만남을 가졌다. 하나님의 사도로서, 하나님은 바울이 하는 모든 일의 궁극적인 심판자이다. 그는 하나님이 궁극적인 심판자임을 인식한다.

그리고 이제, 여기 있습니다. 그는 성도들에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게, 아카이아 전역의 모든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바울이 디모데의 이름을 거기에 넣은 것이 흥미롭지 않나요? 물론, 어느 시점에서는 빠지죠. 우리는 더 이상 그런 말을 듣지 못하지만, 적어도 그는 자신의 이름을 거기에 넣었습니다.

이제, 그것이 왜 중요할까요? 바울은 디모데가 타락할지 말지 두려워하지 않았고, 따라서 그 편지가 쓸모없게 될 것입니다. 저는 몇 년 전에 다른 사람과 함께 책을 쓴 목사가 그 후로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책을 쓰지 않은 것을 기억합니다. 그들은 그 사람이 타락하면 어떡하지?라고 말합니다. 이제, 왜 다른 사람에 대해 최악을 가정해야 합니까? 당신 자신이 타락하면 어떡하지? 그러면 당신의 글은 어떻게 됩니까? 하지만 바울은 그런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는 디모데를 자신의 이름으로 넣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 조금 이야기해도 될까요? 풀조차도 협업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풀은 누가 공로를 차지하느냐를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오늘날 학계에서는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기를 원하나요? 아니요.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팀워크입니다.

폴은 팀원으로서의 일을 소중히 여긴다. 팀원으로서의 그의 일. 그래서 그는 디모데를 언급한다.

그리고 나서 그는 고린도 사람들을 성도라고 부릅니다. 와우. 당신은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고린도의 성도? 성도를 찾을 수 있는 곳은 정말 이상하죠.

아시다시피, 우리는 오늘날 성인이라는 단어를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합니다. 여기저기서 성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필리핀에서는 그들을 *Rebolto*s라고 부릅니다 .

이런 우상들, 이런 작은 성인들. 그리고 물론, 특정 교파에서는 모든 것에 대한 성인들이 있습니다. 흡연에 대한 성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도둑질 때문에 성인을 두었습니다. 그들은 간통 때문에 성인을 두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성인은 그게 아닙니다.

다른 곳에서는 성인이 있습니다. 당신은 죽은 후에 성인이 되었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바울은 이들이 살아있는 성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그들을 성인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오늘날 성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우리는 그것이 어떤 초영적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보인다고 느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뢰의 관계로 구별된 사람들 대신에. 그러면 누가 성인인가? 그리고 성인이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보시다시피, 첫째, 성인 또는 성인들, 그리스어로 호이 야기 오이는 복수형입니다. 그리고 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바울은 이 단어를 단수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 단어를 복수로 사용합니다. 신약에서 agioi 의 언급은 항상 복수입니다.

Hoi agioi . 그것은 한 민족으로서의 성인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해줍니다.

그것은 선택된 소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신자를 가리킵니다. 로마서 1장 7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도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절에도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도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1장 2절에도 있습니다. 그는 그들을 성도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성도라고 불릴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관계 때문에 성도라고 불립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불렸습니다. 이제 잠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여, 그들이 메리바 에서 어떻게 싸웠는지 알죠 .

그들은 항상 투덜거렸다. 그들은 언제나 불평했다. 마실 물이 없을 때마다 그들은 불평했다.

먹을 음식이 없다고 불평합니다. 그리고 만나에 대해 불평합니다. 천사의 음식이 만족스럽지 않다고 합니다.

제 말은, 당신은 거룩한 사람들로 불리는 이스라엘 자손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런 다음 당신은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그 시점에서 거룩함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저는 그것을 다른 방식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 그것은 소속감의 의미에서의 거룩함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속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로 인해, 그들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성도, 거룩한 자라고 불립니다. 신자들은 그리스도와의 관계로 인해 성도라고 불립니다.

따라서 성인은 사후에 어떤 특별한 일을 했기 때문에 개인에게 부여되는 지위가 아닙니다. 당신은 사후에 당신이 한 어떤 특별한 일 때문에 성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성인이라는 단어는 주로 관계를 나타내지만 그렇게 지정된 사람들에게 기대되는 윤리적인 삶의 방식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인으로 부르셨다면, 우리는 그런 방식으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총리였던 다비드 벤-구리온의 이야기를 기억하시나요? 그는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기독교인이 있나요? 그는 말했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었습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있나요? 그리고 설교자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는 자신과 같은 사람들이 더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그들을 볼 수 없습니다. 아니면 마하트마 간디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그는 선교사와 이야기하고 있었고, 그가 말했고, 그 사람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믿습니까? 제 말은, 당신은 이 경전을 믿습니까? 그리고 설교자가 마하트마 간디에게 말했습니다. 그는 왜 당신은 누군가 또는 남자를 그렇게 좋아하면서 기독교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하트마 간디는 말했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나는 당신의 그리스도를 좋아합니다.

제가 싫어하는 건 그리스도교도입니다. 그리스도와는 다른 게 너무 많거든요. 저는 당신의 그리스도를 좋아하지만, 그리스도교도는 그리스도와는 다른 게 너무 많아서 싫어요. 다시 말해서, 직업에서 믿음과 행동 사이에 갭이 있고, 신뢰성 갭이 있어요.

그리고 바울은 여러분이 성도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성도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반영해야 하고, 하나님의 삶을 반영해야 하며,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반영해야 합니다. 우리가 부르던 노래를 기억합니다. 예수님의 아름다움이 나에게 보이게 하소서. 모든 것이 놀라운 열정과 순수함이며, 모든 영이 신성하고, 모든 본성이 정제되어 예수님의 아름다움이 나에게 보일 때까지.

나는 신을 위해 성인이 되고 싶다. 성인이라는 단어는 소위 말하는 사람들에게 기대되는 윤리적인 삶의 방식을 의미한다. 그래서 그는 아카이아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말했는데, 이는 바울이 자신의 서신을 교회들에 퍼뜨리고자 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것은 고린도 도시의 그리스도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편지를 읽을 수 있는 그 지역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서신에 이어진 인사말은 바울의 평범한 인사말입니다. 그는 독자들에게 은혜와 평화를 기원합니다.

알다시피, 때때로 우리는 오늘 어떻게 인사하는지 궁금해요. 우리의 인사는 의미가 없어요. 안녕, 안녕. 안녕의 의미는 뭐지? 글썄요, 안녕이에요.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안녕은 그저 안녕 거기 머물러라 아니면 안녕 여기 오지 마. 하지만 바울은 그것을 은혜와 평화로 맞이한다. 그것은 매우 신학적이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는 우리가 용서받는 것이고, 평강은 하나님과 화해한 결과이다. 바로 거기서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에 대해 말한다.

당신은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화로 읽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 와 아들은 모두 은혜와 평화의 근원이며, 그것들은 믿는 자들에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3절을 지금 읽으며 그는 말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송을 드리나이다.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니 그는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시어 우리로 하여금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로 위로하게 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풍성한 것같이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위로도 풍성하니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은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니라.

우리가 위로를 받는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우리가 겪는 것과 같은 고난을 참을성 있게 견뎌낼 때 경험하는 위로를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우리의 소망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우리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처럼 우리의 위로에도 참여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아시아에서 겪은 고난을 여러분이 모르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완전히, 견딜 수 없을 만큼 짓밟혀서 생명 자체를 포기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죽음의 선고를 받았다고 느꼈으므로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이처럼 치명적인 위험에서 구해 주신 그분은 앞으로도 우리를 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가 우리를 다시 구원해 주실 것을 그에게 소망을 두었습니다. 여러분도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를 도우시는 데 동참하여 많은 사람이 많은 사람의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을 위해 우리를 대신하여 감사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바울은 편지를 쓰기 시작하며, 그가 겪은 고난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이것입니다. 바울은 평소의 감사와 기도 방식에서 벗어났습니다. 보통 바울은 서신에서 신자들을 위해 하나님께 감사를 표할 것입니다.

그것이 그가 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는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그것을 뒤집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바울은 그에게 많은 자비와 위로를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편지를 시작합니다.

이 특정 구절에는 많은 것이 있습니다. 이 특정 책과 이 특정 섹션에서 바울이 고통에 대해 말한 많은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구절에서 위로나 위안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제 말은, 이 단어의 이면에 있는 아이디어는 항상 위로하는 동정심 이상입니다.

그것은 강화하고, 돕고, 강하게 만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난 속에서도 신성한 격려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매우, 매우 중요한데, 바울이 고난에 대해 말할 때, 고난은 믿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다시 한 번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로 고난 받는 자들을 위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의 고난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매우 중요한데,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고통에 대해 사용한 단어가 매우 많기 때문입니다. 그는 파스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일식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바울의 언어를 살펴보면, 고통에 대해 사용된 단어가 최소 29개나 나온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 내가 틀리지 않는다면, 58개의 파라클라스와 위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경우, 모든 고통에 대한 언급에 두 배의 위안이 있습니다. 어려움, 고난, 시련에 대한 언급에 두 배의 위안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격려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여기서 사람들을 위해 겪은 고난에 대해 말합니다. 5절을 보세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풍성한 것처럼, 그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 말할 때, 그것은 그가 그리스도를 위해 겪은 고난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를 버리듯이,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위로도 버려집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라.

그리고 저는 여러분이 잠시 거기서 멈추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고난을 당했다면, 우리가 고난을 당했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위로를 위한

것입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바울은 자신을 희생으로 여깁니다.

나중에 그는 고통의 향기에 대해 이야기할 겁니다. 그는 고통의 향기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제 말은, 2장에서요. 그는 그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2장을 보세요. 2장 14절을 봅시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우리를 승리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통해 그분에 대한 지식의 향기를 모든 곳에 퍼뜨리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옵소서. 우리가 향기이기 때문입니다.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그는 그리스어로 osmen , 즉 osmen 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eudes . 창세기로 돌아가 볼까요. 그 문구가 처음 언급된 것을 보셨죠, osmen 에우데스 , 노아의 제물에서.

홍수 후에 노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것은 오스멘 이었습니다. eudes ,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제사. 그런 다음 레위기로 가서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을 살펴보세요.

그리고 칠십인역의 같은 언어는 오스멘 입니다. eudes , 희생, 희생 제물.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삶을 희생으로 이해했습니다. 고통이에요, 희생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고통이에요.

이제 들어보세요, 제 말을 잘 들어보세요. 바울은 자신의 고난을 어떤 면에서는 구원으로 봅니다. 제가 어떤 면에서 구원이라고 말할 때, 저는 그리스도를 바울의 고난과 같은 수준으로 두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하지만 바울은 내가 범죄자로서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알리기 위해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 그런 의미에서, 그의 고통은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적이고, 희생적이며, 선교적입니다. 그것은 그저 엉뚱한 학생이었기 때문에, 또는 그가 알뜰하게 보이고 싶어서 고통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요점이 아니야, 전혀 아니야. 그는 내가 너희를 위해 고난을 당했다고 말했어.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면 그것은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한 거야.

보이시나요? 그것은 여러분의 위로와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그는 우리가 위로받는다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고통 속에서도 신성한 격려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고난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적인 필요를 어떻게 충족시키시는지 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 위로를 받습니다.

이제 다시 돌아와 봅시다. 그것은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공동체적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다른 사람을 통해 주어지고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사람들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해설가인 아담 클라크는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영적 위안은 우리만 사용하도록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과 같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분배되거나 도움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우리가 고통을 받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고통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위로를 받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기 위해 위로를 받습니다. 다시 말해, 목사의 시련과 위로는 당신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의 이익을 위해 허락되고 보내집니다.

제게 아주 가까운 어떤 사람은 항상 신이 허락하면, 그는 그것을 사용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신이 허락하면, 그는 그것을 사용할 것입니다. 신이 당신이 고통받도록 허락하면, 그는 그것을 사용할 것입니다.

그에게는 이유가 있습니다. 알다시피, 교만함은 항상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우리의 필요를 드러내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서 결코 위로를 받지 못합니다.

제 말은, 많은 장관들이 나타나길 원할 거라는 거예요, 글썄요, 아니요, 다 맞았어요. 장관들은 문제가 없어요. 모든 게 괜찮아요.

모든 것이 웅장하고 멋져요. 그것은 외관일 뿐이에요. 사실이 아니에요.

하지만 다른 사람으로부터 오는 고통과 위로는 당신에게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설교자일까요? 공부와 학습으로 모든 신성을 얻었지만 경험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한 설교자 말입니다. 비참한 설교자입니다.

공부로는 모든 것을 얻었지만 경험으로는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많은 사람들이 전도에 대한 책을 쓰고 있지만, 그들은 영혼을 그리스도께 인도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혼에 대해 읽고 있지만, 당신은 결코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제 말은, 그 이야기가 아주 좋다는 거예요. 그럼, 당신이 겪어보지 않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사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고통을 겪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 그들의 위로를 위해 고통을 사용하도록 허락하십니다.

바울의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이었기 때문에, 예수는 바울과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고난 속에서, 예수는 항상 가까이 있었습니다. 알다시피, 그래서 감옥 서신을 볼 때, 그는 항상 자신을 바울, 그리스도의 죄수라고 부를 것입니다.

네, 그를 감옥에 가둔 사람이 그리스도였나요? 바울은, 글썄요, 결국 알라가 그렇게 했다고 말할 겁니다. 그를 감옥에 가둔 사람은 정치 지도자들입니다. 사람들을 선동하고 그를 감옥에 가둔 사람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하지만 그는 수단을 넘어 궁극적인 것을 보았습니다. 바로 신입니다. 저는 신의 뜻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감옥에 있고, 신이 허락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밤에 노래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바울이 밤에 노래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서, 감옥에서의 부흥? 맞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바로 거기에 계셔서, 그와 동일시하고, 그를 위로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의 고난에 바울 자신을 밟는 것보다 더 큰 목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고난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와 구원을 가져다주셨습니다. 아시나요? 바울의 삶은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고 주님, 주님께서 그에게 섬기라고 주신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바울이 고난을 겪는 것은 하나님께서 고린도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좋은 일을 행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의 위로는 그들에게 축복과 격려의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고난을 받든 위로를 받든, 그것은 전부 바울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모두 다른 사람들에 대한 것이지 바울에 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아이들의 일요 학교에서는 “기쁨, 기쁨, 이게 뜻이에요, 예수님이 먼저, 당신 자신이 마지막, 다른 사람들이 그 사이에 있어요” 라고 노래했습니다. 그러니 기쁨을 원한다면, 예수님이 먼저, 당신 자신이 마지막, 다른 사람들이 그 사이에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쁨을 갖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순서를 뒤집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YOJ 또는 YJO인데, 저는 발음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것이 무슨 뜻인지 모르고, 제가 모른다면, 그것은 당신이 없다는 뜻이고, 아마도 그것이 많은 신자들이 기쁨을 갖지 못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대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 대한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든 위로를 받든, 그것은 모두 바울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모두 다른 사람들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시다시피, 바울은 같은 고난을 말합니다. 고린도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이 한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고난을 당했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제 말은,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보세요. 그는 같은 고통을 말했지만, 그들은 같은 방식으로 고통을 겪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아마도 그들 중 누구도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8절에 나오는 바울의 고통과 맞먹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들이 같은 고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알다시피, 당신은 고통받고 있다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고통을 가늠하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보다 더 고통받고 있습니다. 당신은 나보다 더 고통받고 있습니다. 신은 당신의 짐의 한계를 알고 있습니다. 그는 나의 짐의 한계를 알고 있으므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짊어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는 당신이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짊어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서로의 고통을 비교하고, 글썄, 내 고통이 크고, 너의 고통이 더 크고, 하나가 가장 크다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같은 고통입니다. 그는 당신이 같은 고통을 겪는다고 말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바울은 그들의 고통을 최소화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설교자들은, 글썄요, 그게 당신이 낙담하는 이유인가요? 그건 사소한 일입니다. 바울은 그냥, 그건 당신을 괴롭히지 않을 사소한 일이라고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게 당신이 그만두고 싶어하는 이유인가요? 그게 당신이 포기하고 싶어하는 이유인가요?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네, 당신은 내가 겪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을 겪고 있지 않지만, 당신의 고난은 하나님께 중요한 만큼 나의 고난도 하나님께 중요합니다. 당신의 경험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경험만큼이나 타당합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의 경험은 우리가 비교할 때 같은 것이 아니지만, 그것들은 하나님께 모두 중요합니다.

그래서 목사로서 우리는 사람들의 고난을 최소화하는 방법에 대해 조심해야 합니다. 글썄요, 그들이 성숙하지 않다는 뜻이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아니, 아니, 아니, 아니.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바울에게서 배웁니다. 아시다시피, 서론에서 목회서를 보고 싶다면 이 책을 읽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 원한다면 상담하는 방법을 알고 싶어하지 않을 것입니다. 고린도후서에 와서 바울이 한 방식을 보세요. 바울은 그들이 같은 고통을 겪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고통의 정확한 상황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과 하나님께서 고통을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만큼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같은 고통을 공유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신약성서의 고통에 대한 개념은 매우 광범위하며, 박해라는 한 가지 종류의 고난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8절에서 11절까지 다시 읽어 보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아시아에서 겪은 고통을 여러분이 모르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완전히,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짓밟혀서 생명 자체에 절망했습니다. 여러분은 좋은 리더십의 표시를 봅니다. 여기에 취약성이 있습니다.

폴은 청중에게 자신을 취약하게 만들고 말했습니다. 보세요, 우리는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겪은 일이고, 우리는 알고 싶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삶 자체에 절망했다고 말했습니다. 즉, 가능하다면 우리는 죽었을 것입니다.

이제, 어떤 사람들은 폴이 말하지 않는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들은 임상적 우울증에 대해 말할 것입니다. 폴은 여기서 임상적 우울증에 대해 말하지 않습니다. 폴은 말하지 않습니다. 오, 우리는 너무 우울합니다.

이것은 우울증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가까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우리가 죽는 것이 더 낫다고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바울입니다.

내 말을 들어보세요. 이것은 탁월한 사도입니다. 그는 우리가 참을 수 없게 되어서 절망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무너져서 삶 자체를 포기했습니다. 그가 한 말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는 삶에서 이런 일을 겪습니다. 그리고 원수는 이렇게 속삭입니다. 글썄요, 당신은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아닐지도 몰라요.

그건 사실이 아니야. 내가 기독교인인지 아닌지는 악마가 결정하지 않아.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걸 알아.

고통을 겪을 때, 적이 당신에게 무언가일 때, 그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알아야 합니다. 그는 우리가 삶에 절망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짓밟혔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죽음의 선고를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는 우리를 그토록 치명적인 것에서 구해 내시고 계속 구해 내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는 무엇을 합니까? 8절에서 11절까지 바울은 그와 그의 동료들이 겪은 고난을 자세히 언급하지 않고 계속 언급합니다.

들어보세요. 바울은 자신의 시련에 대해 퍼레이드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그가 말한 시련을 알고 있었고 , 그는 인기를 얻기 위해 세부 사항을 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간증을 할 때, 우리는 초점이 구원자 하나님이 아닌 우리에게 맞춰지는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알다시피, 당신은 재판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느꼈습니다. 자신에게 사형 선고가 내려졌지만, 그는 구원을 보고, 구원을 위해 부활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잡아채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잡아채셨습니다. 여러분은 시련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잡아채셨습니다.

제 말은, 그는 우리를 구해냈어요. 그는 우리를 죽음의 턱에서 낚아챘어요 . 오직 신의 개입만이 그를 구해낼 수 있었어요.

보세요. 고난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우연적이거나 우연이 아닙니다. 이제 , 우리는 바울의 고난의 정확한 본질을 모릅니다.

선교사로서의 그의 일을 힘들게 만든 것은 아마도 어떤 종류의 박해나 신체적 고통이었을 것이다. 적어도 다섯 가지 제안이 주어졌다. 적어도 다섯 가지 제안.

첫 번째,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서 바울은 에베소에서 우리가 야수와 싸웠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 구절에서 그는 유대인 법정에서 끌려간 후 39 번의 채찍질을 당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유대인에게 줄 수 있는 최대 처벌은 40번이었습니다.

39, 보통은 멈추겠지만, 40, 40보다 더 많이 주면 지나친 판단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제가 그걸 다섯 번 이나 겪었다고 말했어요 . 다섯 번이나.

그는 다섯 번이나 맞았습니다. 알다시피, 제가 고린도전서나 바울서를 가르칠 때, 저는 바울의 이력서라고 부르는 것을 가지고 있고, 이력서를 구성하고, 글썄요, 이 목사를 고용하고 싶습니까?라고 말합니다. 그런 다음 바울의 이력서를 말합니다. 그는 자신을 무엇이라고 부르나요? 그는 자신을 죄수라고 부릅니다.

그는 전화해서 뭐라고요? 잠을 잘 수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는 속으로 고통받고, 밖으로 고통받고, 이런 위험에 처해 있고, 저런 위험에 처해 있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저는 제 학생들이 보통 꼴을 고용하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제 말은, 감옥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을 누가 고용하겠어요? 너무 친절해서 그를 다섯 번, 39번이나 때리는 사람을 누가 고용하고 싶어할까요? 그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을까요. 그리고 폭동을 선동하는 사람도요. 사도행전 19장에서, 제 말은, 그가 폭동을 일으킨 사람이 아니라, 그가 거기에 있는 것이 폭동을 선동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목사로 고용하고 싶습니까? 그가 정확히 무엇을 겪었는지는 모르지만, 이것은 그가 사도행전 20장 19절에서 트로아스를 떠나기 직전에 겪었던 특정 박해에 대한 암시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가 반복적인 신체적 질병을 앓고 있었다고 말할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일 수도 있고, 이 중 하나일 수도 있고, 이 중 두 개일 수도 있지만, 적어도 우리는 그가 고통받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고문을 당했고, 그 모든 것이었습니다. 바울과 그의 동료들이 마주친 문제가 무엇이든, 그것은 나빴습니다. 그는 그들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힘에 눌려, 심지어 생명에 대해서도 절망할 지경에 이르렀다고 말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바울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죽음을 예상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가끔은 항상 그런 식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우리는 영원의 빛 속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하며, 그 영원이 언제 시작되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글로버가 묘사한 방식과 달리, 그는 그리스도인은 미래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우리는 더 나은 곳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미래를 위해 산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미래와 기대를 위해 삽니다.

하지만 10절을 보세요. 이 모든 것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10절을 다시 읽어주고 싶습니다. 우리를 치명적인 위험에서 구해 주신 그분께서 앞으로도 계속 구해 주실 것이고, 우리는 그분께서 다시 우리를 구해 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그분에게 두었습니다.

아시죠, 당신은 과거, 현재, 미래를 봅니다. 그는 우리를 구했고, 구하고 있고, 내일 문제가 다시 온다면, 우리는 그가 우리를 구해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구원의 계획과 바울처럼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바울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우리가 구원받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을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원에는 이 세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는 우리를 구했다고 말했고, 우리는 그가 우리를 구해낼 것이라고 믿으며, 미래에 문제가 생기면 그는 우리를 구해낼 것입니다.

저는 전혀 희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제 말은, 바울은 매우 희망적이었고, 그의 희망은 신에게 있었습니다. 보세요, 바울은 우리가 신을 신뢰한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진 것이 그의 개인적인 믿음에만 근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이것을 들어보세요. 그것은 다른 사람들의 중보 기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개인주의자도 아니고 혼자 하는 목사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신자들에게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오늘날 우리 설교자 대부분은 회중원들에게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라고 말하면 험담의 대상이 됩니다.

그들은 우리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말합니다. 목사님은 우리가 그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가족 문제가 있나요? 그의 자녀들이 문제가 있나요? 그는 재정적으로 파산하고 있나요? 그는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과 목사들은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험담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풀은 취약한 모습을 드러내고, 이것이 제 문제라고 말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이것이 제가 기도해 주길 바라는 것입니다. 그는 혼자 하는 목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역에서 슈퍼맨처럼 행동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그것을 요청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기도에 의지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고린도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을 위해 기도했을 때 실제로 그를 도왔습니다. 그는 중보자가 필요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생각하며,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경하지만, 그를 위해 기도한 모든 사람들을 생각합니까? 바울은 사역에서 자신의 효과성의 많은 부분을 그들에게 돌렸습니다. 이제 12절에서 14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자신의 성실성을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참으로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며, 우리 양심의 증거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솔직함과 경건한 성실함으로 처신하였습니다. 세상적인 지혜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더욱이 여러분을 향해서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쓰는 것은 여러분이 읽고 이해할 수 있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신이 이미 우리를 부분적으로 이해했듯이, 주 예수님의 날에 우리가 당신의 자랑이 되고, 당신이 우리의 자랑이 된다는 것을 끝까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시다시피, 고린도 그리스도인들은 매우 계산적이고 조종적인 목사들을 다루는 데 익숙했을 것이고, 바울도 마찬가지로 생각했거나 생각했을 것입니다. 알다시피, 고린도전서 16장 5절에서 바울은 이미 자신이 올 것이라고 그들에게 말했지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그들은 그가 그들을 조종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요? 그를 믿을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이 온다고 말했는데 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폴은, 아니, 당신은 틀렸고, 나는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그를 질책했습니다. 그들은 그가 오지 않는다고 말했기 때문에 그를 질책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뻔뻔하다고 주장합니다.

알다시피, 바울은 여기 12절에서 14절에서 두 가지 문제를 다룹니다. 일반적인 비난. 첫째, 그는 정직하지 않고 뻔뻔스럽게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12절에서 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가 진심이 아니었고, 그의 편지에서 세상적인 교활함을 보였는데, 한 가지를 쓰고 다른 것을 의미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어요. 지금 13절을 보세요.

우리는 여러분이 읽고 이해할 수 있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쓰지 않습니다. 끝까지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제 말을 잘 들어보세요.

바울의 편지는 전화 통화의 한쪽 끝일 뿐입니다. 우리는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습니다. 고린도인들이 말하는 것을 듣지 못합니다.

고린도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울의 대답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대답을 듣고 나서, 좋아, 이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말하세요. 그리고 이게 12절과 13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며, 우리 양심의 증거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솔직함과 경건한 성실함으로 행동했습니다. 보시다시피, 그 구절에는 약간의 텍스트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aplotety를 복용 하고 어떤 사람들은 hagiotes를 복용합니다 . 저는 이 자리에서 hagiotes를 복용하고 경건함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경건함 속에서, 우리는 당신에게 왔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솔직함과 경건한 성실함으로 처신했습니다. 세상적인 지혜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을 향해서 말입니다. 즉 바울에게는 두 가지 혐의가 있었습니다. 첫째, 일반적인 비난, 그는 뻔뻔스럽게 행동했습니다. 둘째, 이해할 수 없는 편지입니다.

그는 편지에서 한 가지를 말하고 다른 것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아니요, 이것들은 바울이 그에게 가능한 유일한 방법으로 대답해야 했던 근거 없는 비난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었을까요? 자신의 양심의 증언과 고린도인들이 그의 행실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호소함으로써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교회와 세상에서 그의 행동은 하나님께서 의도의 순수성과 그의 서신의 개방성을 주신 것으로 특징지어졌다고 주장합니다. 제 의도가 옳은가요? 그리고 당신과의 서신은 매우 명확합니다. 보시다시피, 고린도인들은 이미 그에게서 적어도 세 통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제 말은, 그들은 이미 세 통의 편지를 받았고, 그는 지금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저는 여러분이 읽고 이해할 수 있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과 동료들이 세상과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 거룩함으로 처신했으며, 그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경건한 성실함, 육체적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처신했습니다.

알다시피, 바울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십니까? 저는 카멜레온처럼 색깔을 바꾸지 않습니다. 당신이 보는 것이 당신이 얻는 것입니다. 저는 그가 어울리는 사람들의 도덕적, 영적 성향에 적응하는 카멜레온 같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시다시피, 사람들은 항상 말하죠. 로마에 있을 때는 로마인처럼 행동하세요. 로마에 있을 때는 로마인처럼 행동하세요. 그러다가 다른 곳에 있을 때는, 아니, 그건 바울이 아니에요.

그의 삶은 일관성이 있었습니다. 거룩한 삶은 일관된 성실함의 삶이며, 당신이 말하는 것을 의미하고 당신이 의미하는 것을 말하며, 당신의 말을 지키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것이 바로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12절에서 14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이미 부분적으로 이해했듯이 주 예수의 날에 우리가 여러분의 자랑이 되고, 여러분이 우리의 자랑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와 세상에서 자신의 행동이 하나님께서 주신 의도의 순수함과 개방성으로 특징지어졌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지배되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그의 서신 중 어느 것도 그의 의미가 줄 사이를 읽는 것만으로 분명해지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바울이 말할 때, 당신은 줄 사이를 읽고 그것을 알아내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많은 목사님들, 알아내야 합니다. 그들이 진짜로 뭐라고 말하는 걸까요? 제가 잘 알아들을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그들이 오라고 하면, 갈 가능성이 큼니다.

그들이 가라고 하면, 그들이 앞으로 가라고 하면, 너는 앞으로 나를 만나러 가, 왜냐하면 그들이 뒤로 가고 있기 때문에 너는 뒤로 돌아가는 게 낫지. 그러니, 넌 줄 사이를 읽고 싶어. 하지만 폴은, 나에 관해서는, 넌 줄 사이를 읽을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오히려 표면에 드러나 있는 그의 서신의 의미는 읽기만 해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의 개종자들에게 그들이 이미 그의 동기와 의도를, 특히 디도의 최근 방문을 통해,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상기시키며 결론을 내립니다. 그는 그들이 우리 주 예수의 날에 그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이유를 지금 그들에게 줄 수 있다는 확신을 충분히 갖게 되기를 바란다고 표현합니다.

그런 다음 바울은 고린도인들과 함께 직면한 다음 문제, 즉 여행 계획의 변경을 다룹니다. 이것이 어려움입니다. 여행 계획의 변경.

15절에서 17절까지, 내가 이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나는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에게 두 배의 은혜를 베풀기를 원했습니다. 나는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에게 두 배의 은혜를 베풀기를 원했습니다. 내 말은, 옛 킹 제임스 성경은 그것을 두 배의 축복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이중 축복에 대한 작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몇 년 전에 THM 수업을 듣고 있었는데, 그때 고린도후서의 선생님이었던 콜린 크루즈가 그 지점에 도달했고, 그는 이중 축복은 웨슬리안이 틀렸다고 말했습니다. 바울이 완전 성화의 이중 축복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와, 내 머리가 터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웨슬리안이고, 감리교인이고, 이것은 우리가 구원에 이은 두 번째 은혜의 행보로서 성화를 위한 이중 축복으로 붙잡아 온 구절 중 하나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마치 누군가가 당신이 사다리를 오르고 있을 때, 누군가가 당신 밑에서 사다리를 빼앗아 당신이 떨어져서 추락한 것 같아요. 저는 기분이 상했고, 당신이 그렇다면 당신도 기분이 상할 거라고 확신해요.

나는 내가 붙잡고 있던 것 중 하나가 막 벗겨져 나가기 시작해서 기분이 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수업에서 나는 만약 신이 내가 박사 학위를 하는 것을 도와준다면, 나는 성화에 관해 할 것이라고 마음먹었습니다.

그 수업 때문에, 그 구절 때문에, 저는 말했습니다. 글썄요, 말씀하신 내용 때문에, 그리고 정말로 주님께서 저를 도우셨기 때문에, 저는 계속 공부했고, 박사 학위를 받았고, 성화에 대해 했고, 마치고 합격한 후에 콜린 크루즈 박사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저는 말했습니다. 글썄요, 당신이 더 잘할 수 있을 겁니다. 당신은 아마 저를 다시 기억하지 못할 겁니다. 저는 당신의 학생이었습니다. 이게 당신이 이 수업에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가 성화에 대한 믿음에 대해 더 공부하도록 동기를 부여했고, 지금은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에게 은혜로운 편지를 다시 썼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 구절에 대한 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는 바울이 여기서 거룩함의 이중 축복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옳았습니다.

이제, 그것은 파괴하지 않고, 나의 성화는 고린도후서 115장과 함께 상승하거나 하락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지금은 훨씬 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내가 다시 여러분에게 가고 싶어서 두 번째 여러분을 방문하면 기쁨이 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이중 축복이에요, 순수하고 단순하죠. 그게 그가 말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에게 가요.

마케도니아로 가는 길에 여러분을 방문하고 마케도니아에서 돌아오고 싶었습니다. 유대로 보내셨나요? 제가 이렇게 하려고 할 때 망설였나요? 평범한 인간 기준에 따라 계획을 세우고, 동시에 예, 예, 아니오, 아니오라고 말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잠깐 거기서 멈추세요. 바울은 에베소를 떠난 후 고린도를 두 번 방문할 계획이었습니다.

마케도니아로 여행을 갔을 때와 유대로 가기 전에 돌아왔을 때. 15절과 16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설명하는 이유 때문에 그는 고린도로 바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중에 그것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코린트로 바로 가지 않고 먼저 마케도니아로 갔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그의 비방자들과 적들은 그것을 이용했고, 그는 신뢰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그를 변덕스럽고 신뢰할 수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흥미롭죠. 그들은 그리스어 단어인 *elaphria*를 사용했습니다 .

엘라프리아는 가볍게라는 뜻입니다. 그는 가볍습니다. 그는 변덕스럽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들은 그를 우유부단함, 변덕스러운 우유부단함, 성격의 경박함으로 비난했습니다. 그들은 이 남자를 믿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그의 자의적인 여행 계획 변경은 깨진 약속이나 코린트의 필요에 대한 관심이 없는 순수한 자기 이익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이 남자가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저 약속만 합니다. 약속은 해야 하고 어겨야 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요즘은 사람들이 약속을 어기려고 하는 게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인들은 아마 그것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을 계획을 정하지 못하는 사람이거나 계획을 실행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비판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바울의 여행 계획 변경을 애정 감소와 동일시했습니다.

그들은 그가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17절: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할 때 망설였을까요? 나는 평범한 인간 기준에 따라 계획을 세우고, 동시에 예, 아니오, 아니오라고 말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하지만 그들은 틀렸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비난하려고 한 것이 틀렸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들이 실망한 건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온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들은 실망해야 합니다.

그건 이해할 만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바울의 마음을 몰랐고, 그의 상황을 몰랐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바로 거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하는 일에 대한 동기를 비난하는 데 매우 느리게 행동해야 합니다. 보통 우리는 동기를 매우 잘 비난합니다. 우리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글썄요, 이 사람들은 책임이 없습니다.

보세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목사이고 누군가가 당신의 교회에 늦게 왔다고 합시다. 그리고 그 사람이 들어오는 순간, 당신은 교회에 늦게 오는 사람들은 진지하지 않고, 신에게 헌신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교회에 오기 전에 개인이 겪은 싸움과 투쟁을 모릅니다.

그날 아침, 그는 오고 싶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악마는 그를 다시 데려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습니다. 그는 옷을 입고, 앉았고, 옷을 입고, 앉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나는 교회에 갈 거야. 늦었지만 나는 교회에 갈 거야. 그래서 그는 승리했어.

그는 교회에 왔지만 늦게 왔습니다. 하지만 목사로서 당신은 그 사람이 들어오면, 모든 늦게 온 사람들과 당신 늦게 온 사람들, 당신은 천국에 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악마는 말합니다. 내가 가지 말라고 하지 않았나요? 이제 당신은 왔습니다. 당신은 늦게 왔습니다.

방금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말을 듣지 않았나요? 그리고 낙담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동기를 추구할 때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답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결론을 내리기 전에 모든 세부 사항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매우 빠르게 결론을 내립니다. 제 말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서를 읽을 때와 같습니다. 그들은 신과 르우벤 지파, 르우벤 지파와 신, 그리고 제단을 쌓으러 간 므낫세 지파를 가지고 있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서 싸우고 죽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등뒤에서 칼을 찔렀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갈 때, 그들은 말합니다. 들어보세요, 우리는 신에게 향을 피우기 위해 이 제단을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우리에게 물으면 우리가 그들에게 말할 수 있도록 이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우리와 당신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묻는다면, 우리는 그것이 당신에게 속할 것이라는 상징이라고 그들에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느님은 그들이 형제들을 죽이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다시 말해, 동기를 비난하기 전에 매우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고린도인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바울을 비난했습니다. 물론, 그들은 실망했고, 실망하는 것은 옳은 일이었지만, 실망에 대해 바울을 비난하려는 것은 틀렸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마음과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손을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8절에서 보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만큼, 나는 너희를 원한다. 는 말은 예와 아니오가 아닙니다. 바울은 말한다. 나는 너희를 원한다. 바울은 그 비난에 너무 괴로워서 확신한다. 그는 노력했고, 자신의 무죄를 확신했기 때문에 엄숙하게 하나님의 의심할 여지 없는 신뢰성을 호소한다. 그리고 여기서 정직함이 등장한다.

그는 자신의 신뢰성에 대한 두 가지 주장을 제시하여 자신의 신뢰성을 옹호합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계획을 변경한 두 가지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그의 첫 번째 주장은 그리스도의 사역이 그에게 신뢰성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말, 변화, 계획의 진술, 메시지가 동시에 예와 아니오가 아니라고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신실함에 호소함으로써 이 선언을 뒷받침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신실함에 호소합니다.

당신이 확신하는 그 사람은 누구인가요? 바로 당신 자신이에요. 당신은 당신 자신의 성실함을 신의 성실함과 연결할 수 있죠. 바울이 한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개인적 성실함을 신의 성실함과 연결했습니다. 제 말은, 이게 정말 강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매우 괴로워합니다. 그는 그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할 때나 그의 괴로운 계획을 말할 때 그의 언어가 예와 아니오의 모호한 혼합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동시에 예와 아니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그는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양쪽 입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전혀요 .

단호한 예가 아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었을까요 ? 그래서 바울은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신의 신실함에 호소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말의 가치가 별로 없다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정치인들은 쉽게 변한다. 그들은 오늘 무언가를 약속했고 내일은 사라질 것이라고. 그들은 잊어버린다.

그들은 취임하자마자 선거 공약을 철회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법정에서 진실만을 말하겠다고 맹세하지만, 그들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성경에 손을 대면, 당신은 진실만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뻔뻔스럽게 말합니다. 우리는 사역에서 그런 것을 가질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보존을 위해 거짓말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약속은 그저 깨지기 위해 하는 것 같지만, 바울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를 신뢰할 수 있는지 아는 것은 어렵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그의 성품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의 성품을 드러냅니다 .

하나님은 자신이 하는 모든 약속을 이행하십니다. 바울과 그의 동료들이 고린도인들에게 전파했던 하나님의 아들, 이 신자들이 영접한 분은 동시에 '예'와 '아니오'가 아니라, 단호한 '예'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그 구절을 약속으로 인용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와 아멘입니다. 글쎄요, 문맥을 살펴보세요. 문맥을 보면, 바울은 하나님의 성실성과 연결된 자신의 성실성에 대해서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성실성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성실함은 약속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신실함과 연결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당신의 구원과 그에 따른 당신의 연속적인 영적 체험이 그리스도와 그의 사역의 긍정적인 특성이 사도에게 너무나 생생해서 그의 삶과 사역에 스며들었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말합니다. 아시나요? 바울은 신뢰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신뢰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신뢰성에 대한 두 번째 주장은 고린도인과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그의 인식입니다. 21절과 22절에서 그는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과 함께 하시는 일과 그들이 회심할 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주의를 기울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고 계십니다. 21절에서 그는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여러분과 함께 세우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다음 바울은 성령이 믿는 자들의 삶에서 행하는 여러 가지 일을 설명합니다.

21절과 22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우리를 굳게 세우시고, 우리에게 인장을 찍으시고, 우리 마음에 영을 첫 번째 할부로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믿는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리스도인의 삶과 봉사를 위해 능력을 주십니다.

성령은 또한 우리를 인봉하고 우리의 유대감입니다. 도장은 단어에서 암시하듯이 소유권의 표시입니다. 우리는 그에게 속합니다. 더욱이 성령은 이생 너머에 있는 미래의 축복에 대한 보증이나 보증이 됩니다.

아시다시피, 바울이 이러한 신성한 일들에 대한 인식을 가졌기 때문에 그는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복음 약속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의 신뢰성과 그의 백성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이 사도들의 성격을 형성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우리의 성격을 형성합니다.

우리가 그 중요성을 숙고할 때, 바울은 자신의 계획을 바꾼 두 가지 이유를 제시함으로써 자신의 신뢰성에 대한 주장을 완성합니다. 23절을 보십시오. 우리에게 인장을 찍음으로써 나는 그것을 포기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나를 대적하는 증인으로 부릅니다.

내가 고린도에 다시 오지 않은 것은 너희를 아끼기 위해서였다. 이제 그는 그들에게 그 이유를 말한다. 내가 오지 않은 이유를 너희가 알았다면, 너희는 하나님께 감사했어야 한다.

그건 당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당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왔다면, 아마 상황이 지금처럼 되지 않았을 테니까요.

당신은 그것을 즐기지 못했을 겁니다. 문자 그대로 표현하자면, 그는 내가 신을 증인으로 부르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고린도에 다시 오지 않은 것은 너희를 아끼기 위해서였다. 너희는 그가 그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 것이다. 그는 그들을 사랑했다.

그는 그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믿음 안에서 그의 자녀들이었고, 그는 그들에게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그의 계획을 바꾼 첫 번째 이유는 그들에게 징계, 사도적 징계를 아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에게 죽음의 슬픔을 주기보다는 그들끼리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주고 싶었습니다 . 그는 맹세로 자신의 진술을 확인합니다.

그는 자신의 동기를 증명할 방법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이나 그의 동료들이 고린도인들의 믿음을 지배하는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취했다고 설명합니다. 흥미롭지 않나요? 불행히도 오늘날, 특히 다수 세계에서 설교자와 목사들은 마치 자기들이 회원들의 믿음을 지배하는 주인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대다수의 세계에서 그들의 세계는 신과 거의 같습니다. 신은 "선생님, 지금은 이걸 할 수 없어요. 기도하고 싶어요."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목사는 "음, 기도했어요. 알아요."라고 말할 것입니다.

기도할 필요 없어요. 그냥 가면 돼요. 아니요, 바울이 말했어요 .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나는 당신의 신앙을 지배하지 않습니다. 제 말은, 슬픈 일이죠. 많은 목사들처럼, 제 말은, 그들은 신을 흉내냅니다.

그리고 바울은 내가 신을 흉내내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여러분의 기쁨을 증진시키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사역이 기본적으로 고린도인들의 영적 안녕을 증진시키는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그들이 그들의 신앙을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으로 향하게 함으로써 그들과 그들의 안녕을 사랑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사도였지만 그들의 신앙을 지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권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목사님과 크리스천 일꾼들은 그 권리를 찬탈하려는 유혹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장을 살펴보면, 이해하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요약하자면, 우리는 성도가 되도록 부름받았다고 말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고귀한 부름에 부응해야 합니다. 특히 오늘날 우리가 둘러싸여 있는 도덕적으로 오염된 환경에서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있는 성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고 불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고 우리의 삶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반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언제 결정을 내리고 싶은지 생각해야 합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 아래에서 결정을 내립니다. 우리가 리더십 위치에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결정이 어떤 식으로든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결정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아래에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우리는 또한 정직성은 그리스도인 일꾼의 삶에서 협상할 수 없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정직성의 부족은 사역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우리가 알든 모르든, 그것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시련의 때에 바울에 대해 뭔가를 배웠습니다.

그는 목적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샀습니다. 그는 피해자 의식이 없었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서 그의 목적과 계획을 이루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고통을 받든 위로를 받든 그것은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고린도후서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Ayo Adewuya 박사입니다 . 이것은 세션 2, 고린도후서 1, 인사, 기도, 감사, 여행 계획입니다.